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수처·인사청문회 등 與野, 현안 공방 예고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시작**  
민주당 “일하는국회 실현에 최선”  
통합당 “국민과 국익위해 싸울 것”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처리한 직후 7월 국회 소집에 나서면서다.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이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7월 국회 중 열릴 인사청문회 준비도 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현안 브리핑에서 3차 추경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7월 국회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좌고우면(左顧右盼)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7월 국회에서는 통합당도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입법과 건전한 대안 제시로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5일 원내 복귀를 선언했다.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에서 대어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한 데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당은 7월 국회에서 경제 위기와 안보 파탄, 부동산·가계 폭동,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급등, 인공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국민 삶을 짓누르는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공수처 관련 현안 ▲부동산 정책 대안 마련 ▲정부 대북 정책 및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관련 윤미향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추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수사 및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의혹 진상 규명 ▲김·언 유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특별검사) 도입 등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할 현안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7월 국회 의사 일정 참여를 위해 이르면 6일 국회에 상임위 배정표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7월 국회 의사 일정 협의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도 “(민주당에서) 제안이 오면 의사 일정에 관해서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 국회에서 예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산업부, 오늘부터 여름철 ‘절전 캠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6일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력수급대책기간 중 여름철 절전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예년과 달리 온라인 등 비대면 위주로 진행된다. 에너지절약 실천에 더해 생활 속 방역 중심의 ‘슬기로운 냉방요령’을 주제로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리즈로 제작해 유튜브, SNS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캠페인 슬로건은 ‘쫄(Safe, Save, Smart)한 에너지생활, 생활 방역 속 슬기로운 냉방요령’으로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에어컨 사용 전 필터 청소 ▲문 닫고 에어컨 사용하기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용수 기자

# 중기부 ‘존경받는 기업인’ 12명 추가선정

올 첫 국민추천제 경쟁률 14.7대1  
서류·현장평가·발표평가 등 거쳐

케이팩 강석원 대표, 터보원 김민수 대표, 비나텍 성도경 대표 등 12명이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 등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인 신청 접수를 받는 결과 176명이 신청, 1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1차(서류평가), 2차(현장평가), 3차(발표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12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선정을 시작한 존경받는 기업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48명으로 늘어났다.

〈존경받는 기업인 최종 선정 명단〉  
(대표자 성명 가나다 순)

이름	기업
① 강석원	(주)케이팩 대표
② 고봉익	(주)티앤디교육그룹 대표
③ 김민수	터보원(주) 대표
④ 김유신	(주)티디엘 대표
⑤ 박찬암	(주)스틸리언 대표
⑥ 성도경	비나텍(주) 대표
⑦ 유호목	에스제이이(주) 대표
⑧ 이정근	(주)그린텍 대표
⑨ 장상용	(주)엔코아네트웍스 대표
⑩ 장승은	(주)오버맨 대표
⑪ 차성진	호스텐스터(주) 대표
⑫ 형재성	(주)씨티케이 대표

형재성 씨티케이 대표는 지난해 거둔 30억원의 영업이익 가운데 25%인 7

억5000만원을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으로 나눠줬다. 게다가 근로자 1명당 최대 4900만원까지 자녀학자금도 지원하는 등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을 실천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 중소기업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고봉익 티앤디교육그룹대표는 특별 목표 달성시 1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교육서비스 장점과 역량을 발휘해 국내 새터민 청소년과 중국 조선족, 몽골, 아프리카 등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 바자회 등의 모금을 통해 국내 미혼모 단체 지원, 레바논·시리아 난민학교 설립 지원 등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단위 방역대책’ 추진

중수분, 매일 소독차량 1000대 투입  
오염지역 소독, 농장 차단방역 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름철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7~8월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는 감소 추세지만, 봄철 출산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장마철 많은 비로 접경지역 하천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6월 중순부터 무리 생활로 인한 멧돼지간 전파와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 오염으로 어린 멧돼지(연천, 1개월령, 7마리)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매일 소독차량 약 1000대를 동원해 오염지역 일대를 집중 소독하고 8월까지 농장 차단방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위험요인에 대한 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신흥리 일대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방역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환경부

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 농장주와 농장 관리자가 스스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모바일 자가점검 앱을 7월 중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

은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들이 모여야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바이러스의 최후 보루는 개별 농장’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방역시설 보완과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 기자 hys@

## 농진청, 공공일자리 840명 신규채용

비대면·디지털 4개분야 대상  
실업난 해소 일환 3차추경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3차 추경 예산으로 추진하는 비대면·디지털 공공 일자리 4개 분야 84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구축 사업 1개와 비대면 서비스 사업 3개를 기획하고 3차 추경 사업으로 추진한다.

채용 분야 및 인원은 ▲비대면 농산물소독조사 지원체계 구축 90명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 200명 ▲농업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500명 ▲온라인 원예특용작물 농업기술 서비스 지원 사업 50명이다.

신규 채용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자격으로 올해 12월까지 농촌진흥청, 도

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채용일정은 사업별, 지자체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서류접수는 7월 6일~7월 15일, 면접은 7월 8일~7월 17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7월 16일~8월 1일 사이에 업무를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www.rda.go.kr)을 비롯해 도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일자리 사업이 3차 추경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창출 효과를 거두게 됐다”며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길이(m), 질량(kg) 등 올바른 법정 단위 사용을 일상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전은 7월 6일~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국내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평’, ‘돈’, ‘인치’ 등 비법정 단위 대신 ‘미터’, ‘킬로그램’ 등의 법정 단위 사용을 권장하고 국제 기본 단위를 소개하는 포스터(초등학생 대상) 또는 동영상(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을 제작해, 국가기술표준원 법정 단위 홍보 블로그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2점(포스터, UCC 각 1점)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최우수상과 우수상 22점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총 635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한용수 기자